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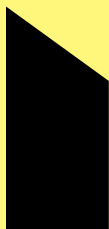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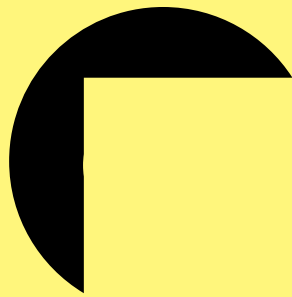
2022-2023
서울상상나라
전시



SEOUL
CHILDREN'S
MUSEUM
EXHIBITION

CONTENTS

	발간사		03
	서울상상나라 소개		04
기획자의 글	‘열 살, 서울상상나라’의 기억과 꿈		06
	모두를 응원해		12
	우리, 캠핑 가요!		16
	엄마·아빠도 행복한 서울상상나라		20
	열 살, 서울상상나라 - 10 YEARS YOUNG		24
2023	기획전	모두를 응원해	30
	상설전	우리, 캠핑 가요!	34
		행복 정원 - 서울엄마아빠VIP존	38
	특별전	꿈의 상상	42
		행복한 꿈을 모아요	46
2022	상설전	아기놀이터	50
	특별전	제인 구달과 함께하는 VR 야생 탐험	54
		열두 달의 어린이날	58
	특별교류전	발견가방 - 장욱진의 그림상자	62
2022-2023	순회전	5개의 집과 30개의 문 - 상상하는 작가 안규철	66
		띠리띠리 컴퓨터 세상	68
		발견가방 - 예술놀이	70
2013-2023	서울상상나라 10년의 전시와 어린이		74
		관람 이용 안내	86



발간사

예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10살이 될 때까지 생일마다 벽사의 의미를 담은 수수팔떡을 지어 무병장수를 빌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정성을 쏟아 키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2023년 서울상상나라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전 직원의 노력과 정성이 있었기에 10살 생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서울상상나라는 총 86회의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상설전과 기획전 개최와 함께 특별전, 교류전, 순회전 등 서울상상나라 안팎에서 크고 작은 전시를 선보이며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전시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2-2023 전시자료집에는 주제와 대상의 확대 및 협력과 교류를 통한 확장의 결과물로 탄생한 전시 내용을 담아내었습니다. 2022년에는 ‘영아’를 위한 공간인 아기놀이터를 확장 개편하였고, 프랑스 콘텐츠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생각놀이터에는 교육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VR 체험을 제공하고,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 교류하여 발전된 형태의 이동형 전시물을 개발하고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일 개관 10주년 기념일에는 코로나 19에 지친 관람객을 위해 ‘어린이의 심리적 행복’을 주제로 한 기획전 <모두를 응원해>를, 10월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캠핑’ 주제의 상설전 문화놀이 <우리, 캠핑 가요!>를 개최하였고, 11월 30일에 부모를 위한 공간인 서울엄마아빠VIP존-<행복 정원>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제 과거의 10년을 뒤로하고, 서울상상나라는 새로운 10년을 위한 전시의 방향을 고민해 봅니다. 격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서울상상나라 고유의 특징을 놓치지 않는 ‘서울상상나라’만의 전시 개발에 정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와 가족의 행복한 시간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학예연구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서울상상나라 관장 **김병태**

서울상상나라 소개

비전 & 미션

우리의 미래상(Vision)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이 자라는 서울상상나라

우리의 사명(Mission)

서울상상나라는 창의적인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린이와 가족의 건전한 삶을 지원하며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전시개념체계

행복을
디자인하는 어린이

서울상상나라는 전시를 통해 어린이 스스로 행복한 경험을 선택하고 즐겁게 놀이하고
배우면서 자기의 세계를 구성하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기 기대합니다.

신체 Body

놀이해요 Wonder
창조해요 Create

정서 Emotion

상상해요 Imagine
존중해요 Respect

인지 Mind

탐험해요 Explore
발견해요 Discover

Play

예술 · 문화 · 과학 · 사회 · 환경 · 영유아 주제별 체험 전시

연령별 콘텐츠 접근

나 —————> 우리 —————> 세계

만 3세 미만 영유아

만 3~12세 아동

행복체험의 단계적용

1단계

즐거움, 기쁨, 열중, 몰입

2단계

자신감, 성취감, 자존감

3단계

자아실현의 꿈 탐색 설계

신체 발달
Physical Development

인지 발달
Cognitive Development

정서 발달
Affective Development

행복을 디자인하는 어린이

5

‘열 살, 서울상상나라’의 기억과 꿈

장화정 학예연구실장

1. 떠오르는 단어, 생각들

2023년 열 살이 된 서울상상나라가 특별한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하고 뜻깊은 전시들을 개발하는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들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응원, 도전, 행복, 상상, 꿈, 나, 우리, 모두, 함께, 성장, 여행, 가족, 마음, 휴식과 같은 말들입니다. 하나하나에 담긴 뜻을 되새겨 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린 시절이나 어른이 되어서나 언제나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소중한 의미와 긍정적인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더 멋진 전시를 완성하기 위해 의논하고 거듭 토론하며 글과 그림, 그리고 디자인으로 표현해내기 위해 노력을 쏟았습니다. 기획전, 상설전, 특별전, 교류전 등 올 한 해에만 6개의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된 모든 전시가 10주년을 맞은 서울상상나라를 축하하고 앞으로 더 잘 해나가자는 단단한 다짐을 담고 있어서 어느 해보다도 애착이 가는 결과물들입니다. 생일을 맞은 어린이가 축하 케이크의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듯이 열 살이 된 서울상상나라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동안의 가치로운 경험과 성과를 기억하고 새로운 성장을 맞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 10년의 기억, 경험, 의미

서울상상나라는 개관하기 전 3년여의 착실한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서울시가 2007년부터 가칭 ‘서울키즈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준비하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문을 하며 프로젝트 전반의 전개 과정을 경험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시와 함께 민관협력의 큰 틀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체험식 어린이박물관을 기획하고 운영한 삼성어린이박물관(1995.5.5-2013.1.31)의 전문인력들이 참여하여 전시개념설계, 건축설계 프로그램 컨설팅, 건축 과정의 감리와 전시설계 제작설치 전반의 컨설팅 및 감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전시와 프로그램 콘텐츠에 체험식 어린이박물관의 개념을 적용하여 개관 전에 완성한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3개월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 복합체험문화시설을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 안에 오픈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보육 인프라 조성 정책 아래 운영되고 있는 서울상상나라는 2013년 문을 연 이래로 총 1,172종 전시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452만 명(*2023.11.30 기준)의 발길이 이어지며, 어린이들과 가족, 선생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시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의 가치

‘행복을 디자인하는 어린이’는 전시개념체계의 중심이자 슬로건으로서 서울상상나라 전시가 다양한 주제를 다루더라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에 이르도록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건립 준비 당시에 서울시가 추진했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어린이와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국 행복에 있음을 표현하고자 설정한 것입니다. 어린이 스스로 자신에게 행복한 경험을 직접 선택해서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이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2013-2023년 전시의 양적 증가와 질적인 변화

지난 10년간 서울상상나라는 총 86건의 전시를 개최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 모두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첫 해인 2013년에 9개의 상설전시와 2개의 기획전시로 시작해서 2023년에 이르기까지 합하여 24건의 상설전시 교체와 9건의 기획전시를 선보였고, 특별전시 14건, 대관전시 11건과 28건의 순회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전시를 개발할 때 초등학교 4-5학년 어린이들로 구성된 ‘어린이큐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어린이의 시각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팬데믹 시기를 맞이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26개의 온라인전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시접근성을 높인 것도 변화의 한 모습입니다.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 기념 특별 전시에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어린이

가장 큰 변화는 전시의 구성을 전시영역 중심에서 **전시주제 중심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개관 초에는 예술놀이, 과학놀이, 신체놀이, 문화놀이 등 아동의 보편적인 놀이 영역 이름으로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영역 중심의 전시를 바탕으로 운영하며 관찰을 거친 후, 해를 거듭하며 새로운 전시를 연구하면서 처음과는 다르게 특별한 메시지와 시의적절한 선택적 기획을 보여주는 전시주제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놀이영역 구성에서 주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특별성을 부각하며 전시기획 내용의 질적인 차원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이는 교육분야와 박물관 문화예술 분야의 변화하는 융합적 트렌드를 반영함과 동시에, 어린이를 위한 발달 및 놀이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려는 창의적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전시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혁신적으로 실천되고 있어 전시와 교육의 상호유기적인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시연구 활동으로 2번의 학술세미나와 해외 전문가와의 콘텐츠 교류도 진행했습니다. 2014년 개관 1주년에 ‘놀이와 상상: 행복한 어린이’ 주제의 학술세미나를 한국아동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2019년에 ‘사회적 변화에 따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전시 미래전략’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주요 담론을 공유하고 소그룹 단위의 밀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팬데믹 시기에는 미국어린이박물관협회(Association of Children's Museums)의 요청으로 프리먼 재단의 FFACES(Freeman Foundation Asian Culture Exhibition Series) 프로젝트에서 미국의 어린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물 개발에 대한 자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구 환경보호를 위해 가상 몰입 경험(VR) 콘텐츠를 만드는 프랑스의 와일드이머전(Wild Immersion Sas)과의 전시협약을 바탕으로 VR 특별전을 운영하여 우수한 품질의 교육적인 가상현실 콘텐츠를 어린이와 보호자가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8년에 5주년과 2023년에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마음’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를 개발**하였고, 건물 중정과 로비에 김용관 작가(2018)와 박미나 작가(2023)의 현대미술 설치작품 연출로 큰 변화를 주며 새단장을 했습니다. 2018년 기획전시 <마음아, 안녕!> 은 어린이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기획전시는 마음근력과 회복탄력성을 다루며 어린이의 도전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념을 할 때마다 어린이가 자기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연구진들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특히 올 해 개최한 <모두를 응원해> 전시는 단체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2023.11)에서 지난 해보다 13.8%나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어 관람객이 기획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해준 것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5주년 기념 기획전 <마음아, 안녕!> 2018 · 10주년 기념 기획전 <모두를 응원해>, 2023 · 중정 유리벽 <풍경조각들> 김용관 전시, 2018 · 로비 특별전 <꿈의 상상>, 박미나 전시, 2023

2023년에는 10주년을 기념하며 전시개막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상상나라는 한 해에 2회에서 많게는 6회까지 신규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지만 전시개막식을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주요 관람객으로 연간 4~50만명 가량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 해는 특별히 기획전시 <모두를 응원해>와 10년 전 개관 때 작업했던 박미나 작가와 다시 만나 연출한 로비 특별전시 <꿈의 상상>, 새로운 교육공간 프로그램 <빛의 방>을 어린이박물관 분야 전문가들에게 소개하며 서울상상나라의 성장한 모습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 10주년 기념 전시개막행사에서 로비 연출 작품과 기획전시 소개

서울상상나라 10년의 의미 : 시민을 위한 공익적 어린이 체험전시기관의 선도적 모델 정립

서울상상나라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례로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문화기관들의 방문과 문의를 받아 왔는데,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10년간 매년 최소 2회 이상의 신규 전시와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서울시의 든든한 지원** 덕분입니다. 공공자원으로 만든 어린이 체험전시기관은 국립, 도립, 시립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증가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내용이나 운영 자원 면에서는 적장은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운영 정책의 변화와 예산 지원 부족으로 신규 전시 교체가 제한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고 어린이박물관(어린이전시실)이 모박물관에 부속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 각기 다른 여건 속에 있습니다. 서울상상나라는 책임 운영을 신뢰하는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안정적 체계를 구축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본에 충실한 **탄탄한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상상나라는 체험식 전시로 모든 전시물을 직접 만지고 놀이하는 경험을 통해서 어린이의 성장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주 관람객인 어린이와 가족의 의미있는 체험과 만족도 고치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기본 방침 아래, 체계적인 관리운영 시스템과 관람객 응대 서비스 매뉴얼 구축, 전시장의 안전 관리 교육 시스템과 기관 내 전시물 유지·보수 전문 인력 등 짜임새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관람객 대상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친절한 커뮤니케이션이 더해져서 기관 전체의 신뢰도를 높여주게 되었다고 봅니다.

셋째, 어린이 체험전시와 프로그램 개발에 적합한 **전문 인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아동학, 철학, 심리학, 디자인, 미술교육, 박물관교육 등을 전공한 탄탄한 연구진과, 국내 최초의 체험식 어린이박물관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가들이 더불어 협력하여 모든 전시 기획과 내용 구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완성합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이 있었기에 지난 10년의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라 믿고 아울러서 미래를 만들어갈 가장 큰 자양분이 아닐까 합니다.

함께 만든 사람들에 대한 기억과 감사

전시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학예연구실은 연구원들과 디자이너, 학예연구실장인 저를 포함한 다섯 사람이 신규 전시들과 순회교류전 등 전시 큐레이팅 뿐만 아니라 ‘어린이큐레이터’, ‘큐레이터와의 대화’ 같은 전시 연계 프로그램, 전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시물 설계 보완 업무, 그리고 전시자료집 발간 등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이번 자료집에는 모든 학예연구원들과 디자이너가 각자 기획하고 디자인한 작업에 대해 연구한 구체적인 내용과 진솔한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그 값진 수고와 정성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한편 개관 초기에 전시 및 프로그램을 함께 만든 사람들 중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관 전 개념설계 단계부터 전시를 개발한 고현아 수석연구원, 디자인 연출 기준을 마련한 이수지 수석연구원, 교육 프로그램 안정화에 기여한 이영주 수석연구원과 민진이 책임연구원 등 소중한 분들 덕분에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3. 어린이를 위한 전시의 품격

1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전시자료집을 발간하며 그동안 어린이를 위한 체험전시를 개발해 오면서 학예연구실장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준 높은 어린이 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계기로 건립 전부터 준비한 전시개념설계와 디자인 연출의 결과물을 죽 훑어보면서 ‘품격’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전시를 만들 때 교과서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방침들이 있습니다. 아동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놀이를 통한 직접적인 경험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안전에 유의하여 설계하고 심미적으로 디자인 하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과 규칙들을 아우르면서 항상 반걸음 더 먼저 우수한 어린이 체험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바로 ‘어린이 전시에서 품격’이 느껴지도록 전체적인 조율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연주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 각자의 악기가 내는 음을 표준음에 맞추어 고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각 담당 큐레이터들이 힘써서 연구하고 기획한 전시내용과 디자이너의 연출과 감각적인 작업들, 전시제작회사의 기술력과 설계 제작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마다 필요한 기준을 지켜서 최적의 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연마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전시에 사용되는 그래픽이나 디자인의 수준도 엄격하게 유지하려 합니다. 어린이용이라고 해서 파스텔톤이나 알록달록한 원색만을 항상 사용한다거나, 흥미 유발과 장식적인 효과 위주로 그림을 쉽게 사용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어린이도 어른처럼 맛있는 것, 조화로운 것, 세련된 것,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고 동경합니다. 어린이가 정성스럽게 완성된 최상의 전시를 경험하면 그것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내재된 창의성을 자극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즐겁게 놀이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전시 기획 의도나 학습내용을 자연스럽게 발견해서 배우게 되는 과정은 어린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체험하는 멋진 경험이 된다고 믿습니다.

4. 꿈꾸며 나아가는 서울상상나라의 미래

서울상상나라의 로비에 들어오면 아름다운 ‘꿈의 상자’ 작품이 맨처음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각기 다른 크레파스 색의 상자 위에 그려진 다양한 개성의 기호들처럼 이곳을 찾아오는 어린이가 각자의 재능과 꿈을 발견하고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더 다채로운 어린이박물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서울상상나라의 변하지 않는 꿈이겠지요. 또한 미래에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허브 공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의 10년과 20년, 다가올 100년 후에도 모든 어린이와 가족의 꿈을 행복하게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관람객을 이 자리에서 맞이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개관 10주년 기념 기획전 <모두를 응원해> 현수막이 걸린 서울상상나라 전경

모두를 응원해

윤서희 학예연구실 선임연구원

올해는 서울상상나라가 열 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행복을 디자인하는 어린이’라는 전시 개념 아래에 매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상상나라 개관 10주년 기념 기획전시를 준비하며 문득 이 ‘행복’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어린이박물관에서는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모두를 응원해>의 기획 과정을 돌아보며 어린이 박물관의 전시 기획자로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에 대해 고민한 것들을 풀어보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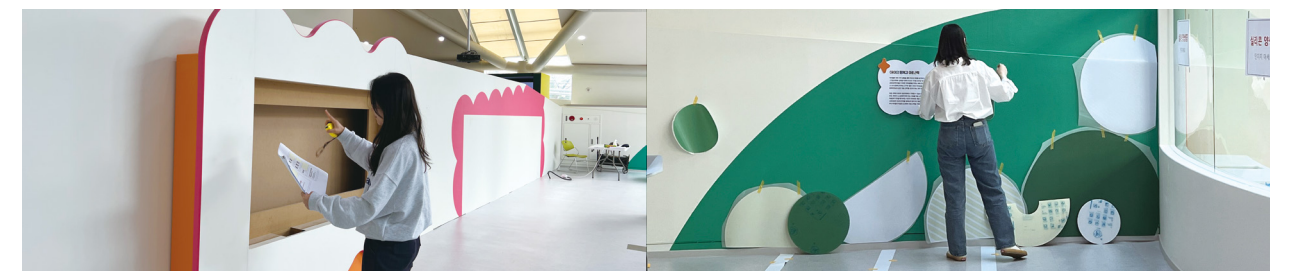
전시 전경

어린이의 삶의 질을 조사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이야기 합니다.¹⁾ 분명 오늘날 아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아졌을까요? 많은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테지만, 아마도 높은 교육열로 인해 아주 어린 시기부터 시작되는 경쟁으로 인한 부담감과,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내며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큰 몫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러한 양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심각해져²⁾ 이제 ‘아동의 심리적 행복’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하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발판으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며 서울상상나라와 어린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전시를 준비하던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전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린이의 행복’이라는 원대한 전시 주제를 잡고 나서 턱 막혀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린이가 행복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국립국어원에서는 행복을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³⁾으로, OECD는 ‘자기 경험과 삶 전반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마음 상태’라고⁴⁾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행복이란 단편적인 기분이라기보다는 기쁜 일과 슬픈 일,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나의 삶과 자기 자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행복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언제 행복한지 물으면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선생님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와 같이 기뻐했던 순간만을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때로는 난관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세상과 자신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내적인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성취가 중시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아마도 실패는 두려운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자신의 주변부터 확장해 세상을 탐색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면서 자라납니다. 꼭 완벽히 잘 해낼 필요도 없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도전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고 탐색하다 보면 무한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내게 되고, 그것을 통해 자신만의 빛을 내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마음 근력을 단단히 다진 유아일수록 높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가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하듯, 마음 근력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아기는 뇌과학에서 행복의 주된 결정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작업이 이루어지기에 최적의 시기인 것입니다.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관람객들이 전시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마음 근력을 단단하게 하는 방법을 경험하고 어린이의 행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마음 근력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를 체험 전시물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시 텍스트만으로 주제를 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전시를 체험하고 놀이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의 상호작용 속에 서로를 격려하는 언어가 묻어나기를, 따뜻한 눈빛이 오고 가기를 바라며 콘텐츠를 설계하였습니다.



전시 설치 과정(기획자·디자이너)

전시는 도전할 마음의 준비를 하며 나 자신을 응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나를 믿어주는 것, 즉 자아존중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응원단의 응원을 받는 아이들·'난 할 수 있어' 노래에 맞춰 춤추는 관람객

도입부를 지나면 도전의 즐거움에 빠져보는 전시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불규칙적으로 켜지는 스위치의 불을 모두 꺼보는 ‘**빛나는 도전**’과 다양한 블록을 쌓아 올려보는 ‘**천천히 해도 괜찮아**’입니다. 도전 과제가 있는 전시물을 기획할 때, 이 도전들이 성공 지향적으로 되어 실패했을 때 좌절감을 느끼거나 경쟁적 과제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성공보다는 실패하더라도 천천히 다시 해보자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난이도로 콘텐츠를 제시하여 스스로 어떤 것에 도전할지 선택하고 차근차근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해 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기획하였습니다. 관람객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것인데, 신기하게도 이 전시 영역에서 만큼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고 말을 자주 건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과제에 스스로 몰입하였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처음 보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도전의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도전을 즐기는 아이들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게 인기 있는 ‘**걱정을 날려요**’는 말 그대로 도전을 주저하게 만드는 걱정을 종이에 적어 날려버리는 전시물입니다. ‘친구들보다 잘 해내지 못할까 걱정이에요’, ‘새로운 것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해요?’, ‘틀리면 창피할 것 같아요’와 같이 아이들이 걱정할 법한 것들을 예시로 적어두었습니다. 그저 종이가 파쇄기에 갈아지고 날아가는 것이 재미있어 반복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와 속삭이며 고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잘 모르는 글자는 할머니에게 물어가며 ‘숙제가 많은 것이 고민’이라고 꼬물꼬물 적던 아이도, 아이에게 가끔 화를 내는 자기 얼굴을 그린 후 날려버리며 웃음 짓던 한 어머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에게 잠시나마 걱정이 날아가고 새로이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걱정을 종이에 적고 날려버리는 가족 관람객

전시는 함께 느끼는 행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음 근력을 다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요**’는 협동과 나눔의 가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하트 모양의 쿠션을 화면을 향해 던지면 화면 속 하트가 점점 커지다가 마지막에는 사람들 위로 축포가 되어 쏟아집니다. 개개인의 작은 마음을 한곳에 모으면 더 큰 행복을 다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시상식**’은 서로에게

주고 싶은 트로피를 골라 선물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보는 전시물입니다. 성취만을 칭찬하지 않을 것, 뒤편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다 잘될 거라는 지나친 낙관을 주지 않을 것. 이 두 가지를 경계하며 트로피에 넣을 문구를 꽤나 오랜 시간 고민하였습니다. 잘못된 칭찬은 오히려 잘 해내지 못했을 때 비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도전을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협동하는 자세,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내는 호기심,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 끝까지 해보는 끈기와 같이 마음 근력을 단단히 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트로피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엄마한테 어떤 트로피 줄래?”라고 아이에게 물으며 기대하는 눈빛으로 기다리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응원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로 나누는 따뜻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보는 전시물

어린이 전시를 기획하며 늘 마음에 새기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교육학자 로리스 말라구치의 「천만에요, 백 가지가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어린이는 백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백 가지의 언어, 백 가지의 손, 백 가지의 생각, 백 가지의 놀이하고 말하는 방법(...)’

우리는 모두 다른 흥미를 갖고 있으며,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세상을 배워나갑니다. 정해진 답이 아닌, 각자의 생각과 모습이 존중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아이들도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표현하고, 백 가지의 생각을 펼칠 수 있어야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린이의 행복한 성장에 있어서 마음껏 도전을 즐기고 꿈꾸면서 자기의 고유한 색깔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 전시를 통해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단단해지길 소망합니다.



스스로 쌓아올린 블록을 보며 기뻐하는 아이들

1) 한국방정환재단(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21). 20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행복지수-코로나19 시기 아동일상 심층 분석 연구 보고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98844&searchKeywordTo=3, 2022.08.18

4) OECD(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우리, 캠핑 가요!

유능화 학예연구실 선임연구원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 도약하기

‘문화’라는 분야의 어린이 체험전시 주제를 선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시절 철학도였던 저는 먼저 ‘문화’의 정의를 살펴보고, 문화란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낸 물질적/정신적 소득(국립국어원)’을 통틀어 말합니다. 또 다른 정의에서 ‘정치나 경제, 법과 제도, 문학과 예술, 도덕, 종교, 풍속 등 인간의 모든 산물(한국학중앙연구원)’을 가리킨 문화의 범위가 매우 광대하고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런 까닭에 서울상상나라의 다른 전시 영역들과 구분되는 ‘문화’ 체험전시 주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할 지 막막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기존 문화놀이 영역 전시와 차별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이를 위해 전시 영역으로서의 ‘문화’ 개념 재정의를 집중했습니다.

앞선 10년간의 문화놀이 영역 전시가 문화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어 세계 의상, 음식, 건축, 직업 등 다양한 문화 체험전시로 구성되었다면, 새로운 전시는 모든 인간 사회에서 발견되는 문화의 ‘보편성’에 주목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한국문화’, ‘조직문화’와 같이 ‘한 사회의 특징적인 생활양식’을 ‘문화’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는 ‘우리’의 울타리를 세계 각지의 모든 인류에게로 넓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닌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를 전시 영역의 개념에 적용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모든 인류에 보편적인 생활양식이자 문화의 다양성을 넘어 인간 생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요소로서의 ‘의·식·주’를 전시 주제로 도출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캠핑

여기서 인간 생활과 ‘캠핑’이 어떤 관계인지 묻게 됩니다. 이번 체험전시 콘텐츠로 선정한 캠핑은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따위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함 또는 그런 생활’을 말합니다. 순우리말로 ‘들살이’라고도 불리는 캠핑은 물과 식량을 찾아 이동하면서 수렵생활을 하던 원시 인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군사적·경제적 목적을 위한 생존 기술로 전수되어 근대에는 자연 속에서 공동체생활과 심신수련이라는 교육적 목적으로 실행되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캠핑 그 자체를 즐기는 여가활동으로 여겨지면서 오토캠핑, 백패킹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김산환, <오토캠핑 바이블(2009, 꿈의지도> 참고). 이처럼 인류의 역사와 함께 현재까지 이어져 온 캠핑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음식과 입을 옷가지를 챙겨 자연 속에서 머물 집을 만드는 일 즉, 캠핑을 통해 우리는 야외에서 ‘의·식·주’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집을 떠나 집을 짓는 아이러니한 활동 속에, 우리가 생활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사업 제안서 평가회 · <오토캠핑 바이블> 저자 (도서출판 꿈의지도 김산환 대표) 인터뷰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의 연구(2022,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을 거치면서 캠핑과 같은 ‘자기주도적’인 여가활동이 증가했으며, 팬데믹 유지 및 팬데믹 이후 시기에도 캠핑에 대한 높은 관심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2020, 2021)에서는 ‘늘어난 여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할 때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 1위로 ‘캠핑’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캠핑을 하는 걸까요? 편안한 도시의 삶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먹고 자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도,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도시에서는 풍요로운 것들이 자연 속엔 없어서 불편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밤 잘 곳부터 직접 만들어야 하니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활용하거나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불편함’과 ‘부지런함’을 기꺼이 견디게 하는 캠핑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부딪치며 발견하는 체험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캠핑카 및 캠핑용품 현장조사



전시 개발 및 설계 회의



전시 공사 모습

우리, 캠핑 가요!

현대 사회는 급격한 기술 진보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 출산을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로 미래 인재에 필요한 핵심 역량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 내용과 교육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총론>). 어린이들이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변혁적 역량 transformative competencies*’과 함께, 공동체 생활에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역량으로서의 ‘인성’을 함양하는 기회가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변혁적 역량이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 지구의 웰빙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제시하는 미래 학습자에게 필요한 3가지 역량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개인의 변혁적 역량은 ‘예측·기대·행동·실행·반추·회고’의 사이클을 통해서 길러지며, 이러한 ‘예측·행동·반추’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학습 과정에서 키워나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2019, <OECD Learning Compass 2030>)

어린이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캠핑 체험전시를 통해, 꼬마 캠퍼가 되어 캠핑의 주요 활동들을 경험해 보면서 집을 떠난 야외의 낯선 환경에서 예측 불가한 문제 상황들에 대처하는 능력과 창의력,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우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하나하나가 캠핑에서는 내 손으로 직접 준비해야 함을 몸소 체험하면서 가족과 주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입고 먹을 것을 직접 준비하여 집처럼 머물 곳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키워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전시가 여러 사정으로 캠핑을 떠나지 못했던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준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캠핑 체험을 마치고 전시장을 나서며 어린이가 자신 있게 ‘우리, 캠핑 가요!’라고 외칠 수 있기를, 이러한 전시 경험이 어린이와 가족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특별한 학습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 기획개발 과정에 참여한 제10기 어린이큐레이터



완성된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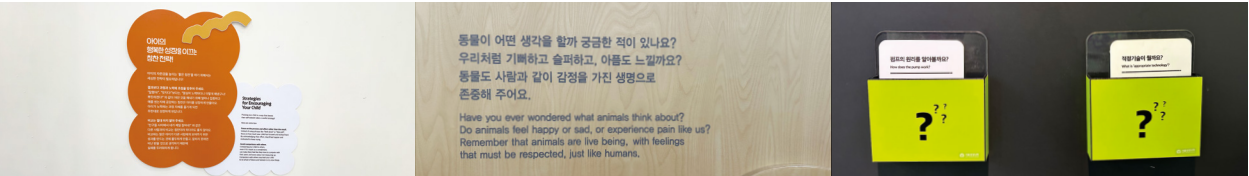
엄마·아빠도 행복한 서울상상나라

박선영 학예연구실 수석연구원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어린이를 위한 체험 전시기획자로서 계획 단계에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가 전시 체험자, 즉 어린이의 발달 단계, 흥미 등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전시장에 가서 어린이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관찰하다보면 어린이와 함께 있는 보호자들의 행복한 표정도 함께 눈에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엄마·아빠를 비롯한 보호자들은 고사리 손으로 뽀뽀뽀 그린 그림에 아이보다 더 큰 미소를 짓고, 한 단 두 단 조심스레 쌓아올린 블록 놀이에 힘찬 박수를 보내며, 여러 번 시도의 과정을 통해 퍼즐을 맞추고 드디어 완성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이와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기도 하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놀이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아이보다 더 아파하며, 작은 행동 하나, 이야기 한 마디에도 미소를 지으며 반응합니다. 인원 제한이 있는 체험과 줄을 서야 하는 전시물에는 보호자들이 대신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도 흔히 전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행복한 놀이를 위해 기꺼이 어렵고 힘든 일은 묵묵히 지원하는 것이 보호자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전시장에서 놀이 활동을 관찰하다 보면 때때로 보호자가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몰라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그래서 서울상상나라는 2013년부터 전시를 기획·개발·운영해 오면서 체험 활동의 주인공인 어린이의 행복한 놀이와 의미 있는 체험을 위해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을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다채롭게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놀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와 상호작용하는 콘텐츠를 전시 기획과정에서 계획하여 전시장 곳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1층 기획전시 <모두를 응원해> 전시에는 어린이의 마음 근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보호자가 어떻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영상과 패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놀이 <별별 동물 퍼즐> 전시에서는 ‘동물이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한 적이 있나요?’와 같이 보호자가 어린이의 활동을 자극하는 질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전시물에 부착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층 신체상상놀이 <뽀뽀! 편 에너지> 전시에는 전시물 별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담은 패널을 설치하여 보호자와 어린이가 전시 활동으로 흥미를 가진 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기놀이터에는 무엇보다도 아기를 보호하고 상호작용이 중요한 시기의 영아 발달 단계에 따른 내용을 패널에 부착하여, 상호작용 시에 참고할 수 있는 보호자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획전·보호자를 위한 패널·자연놀이·어린이 활동을 자극하는 질문·신체상상놀이·정보패널

엄마·아빠도 행복한가요?

전시를 체험하는 아이의 행복한 웃음에 함께 미소 짓는 엄마·아빠의 모습과는 또 다른 표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시간을 내고, 서울상상나라에 방문하여 최선을 다해 놀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일과 육아에 지쳐 피곤함을 감추지 못하는 엄마·아빠의 표정도 눈에 띄곤 합니다. 아이가 놀이하는 모습을 바라보다 어느새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거나, 함께 뛰어놀기에는 체력적으로 벅차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아예 엄마·아빠가 역할을 나누어 한 사람은 아이와 놀이하고 한 사람은 자리 잡고 앉아 쉬며 교대로 아이를 돌보기도 합니다. 놀이하며 한껏 높아진 아이의 에너지를 따라가지 못해 힘겹게 아이 뒤를 쫓아다니는 엄마·아빠의 모습을 보면 괜스레 안쓰러움이 느껴집니다. 아이의 즐거운 놀이를 위해 애쓰는 만큼 아이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테지만 과연 엄마·아빠도 행복할까? 반문하게 됩니다. 주말이면 전시장과 공용부에 비치된 100여석이 넘는 의자에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 그 대답을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웃음에 충만한 행복을 느끼지만, 육아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감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엄마·아빠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서울상상나라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전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공간이지만, 이용하는 대상은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한 어린이 체험시설이 가족 모두를 위한 문화 체험시설로 여겨지는 현재, 서울상상나라는 모든 가족 관람객들을 배려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체험 활동 시 어린이와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을 돕는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부모 대상 강연을 진행하는 것에 더하여 2023년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양육에 지친 부모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새로운 공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위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4대 분야, 즉 ‘안심돌봄·편한외출·건강힐링·일생활균형’으로 구분하여 2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상상나라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울엄마아빠VIP존’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엄마·아빠·아이가 외출 할 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양육자와 아이 전용 휴식 공간의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 엄마·아빠는 휴식을 할 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6월 7일 ~ 25일까지 관람객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한 결과로, 엄마·아빠를 위해서는 기댈 수 있는 의자, 음악이 있는 공간, 아이를 위해서는 도서, 퍼즐 등의 정적인 활동, 아이들끼리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답변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아빠에게 필요한 것은 지치고 힘들 때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의자 정도로 아주 소박한 바람이었고, 아이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독립되어 각자의 휴식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엄마·아빠의 목소리들을 담기 위해서 보호자에게는 편안한 심표를, 아이에게는 차분하게 몰입할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놀이와 휴식이 한 공간에 있는 <행복 정원>

놀이 활동이 중심이 되는 서울상상나라의 특성과 보호자의 휴식이라는 상반되는 목적의 공간을 함께 적용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휴식과 놀이의 공간은 의자로도 활용할 수 있는 낮은 벽체로 구분하여 엄마·아빠의 시야를 막지 않으면서 조용히 혼자 놀고 있는 아이를 항상 지켜볼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엄마·아빠를 위한 공간인 ‘정원 속으로’는 온전한 휴식을 위해 마음의 안정을 주는 식물을 메인 콘텐츠로 정하고, 이와 함께 낮은 조도와 기댈 수 있는 의자로 구성하였습니다. 엄마·아빠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컬러링 도안과 아로마 향기 체험, 육아, 명상, 심 등을 주제로 한 도서 등을 함께 비치하여 다양한 할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획 내용을 포괄하여 공간 이름도 <행복 정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엄마·아빠의 휴식공간 ‘정원 속으로’ · 아이의 놀이 공간 ‘놀이 속으로’

반면 놀이가 곧 휴식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 ‘놀이 속으로’는 동적·정적 활동으로 구성된 서울상상나라의 다른 전시장과는 차별화해서 온전히 정적인 자유구성놀이로만 기획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물로 구성하였습니다. 몰입을 유도하는 블록, 자석 등을 활용한 자유구성놀이는 서울상상나라의 기존 전시콘텐츠를 바탕으로 교구 및 소재 등을 재구성하여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부모 또는 아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행복한 정원을 더 풍성하게 채울 예정입니다.

엄마·아빠 그리고 아이 모두가 행복해요!

서울상상나라는 어린이와 함께 가족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특히 어린이를 위한 놀이 체험전시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그간 부모는 어린이가 즐거운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이자 보호자이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엄마아빠VIP존 -<행복 정원>’에서는 엄마·아빠·보호자 역시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상상나라의 동등한 주인공으로 대접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와 함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다같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 정원>에서 잠시 쉬어 가는 가족들 · 컬러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는 엄마 · 식물을 감상하며 휴식하는 엄마와 아이

열 살, 서울상상나라 - 10 YEARS YOUNG

기남희 학예연구실 선임디자이너

과거와 미래 사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로고 디자인 개발은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10주년’에 대해 물어본다면,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기념하는 ‘과거’와 앞으로의 성장을 그리는 ‘미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정해진 답도 없고, 어떤 가치가 더 우위에 있지 않음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선택하기에 따라 이미지도 달라지기에 로고 디자인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이 선택에 도움을 준 것은 10주년 기념 슬로건이었습니다. 슬로건은 로고와 조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로 연출하게 될 문구입니다. 서울상상나라 10주년 기념 슬로건은 2주간의 사내 공모를 통해 국·영문 슬로건을 모집하고, 재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 중 투표와 심사를 통해 국문 ‘열 살, 서울상상나라’와 영문 ‘10 YEARS YOUNG’이 최종 선택되었습니다. ‘10 years old(10년 된)’가 아니라 ‘이제 겨우 10살!’이라는 의미로, 서울상상나라의 앞으로를 기대하는 기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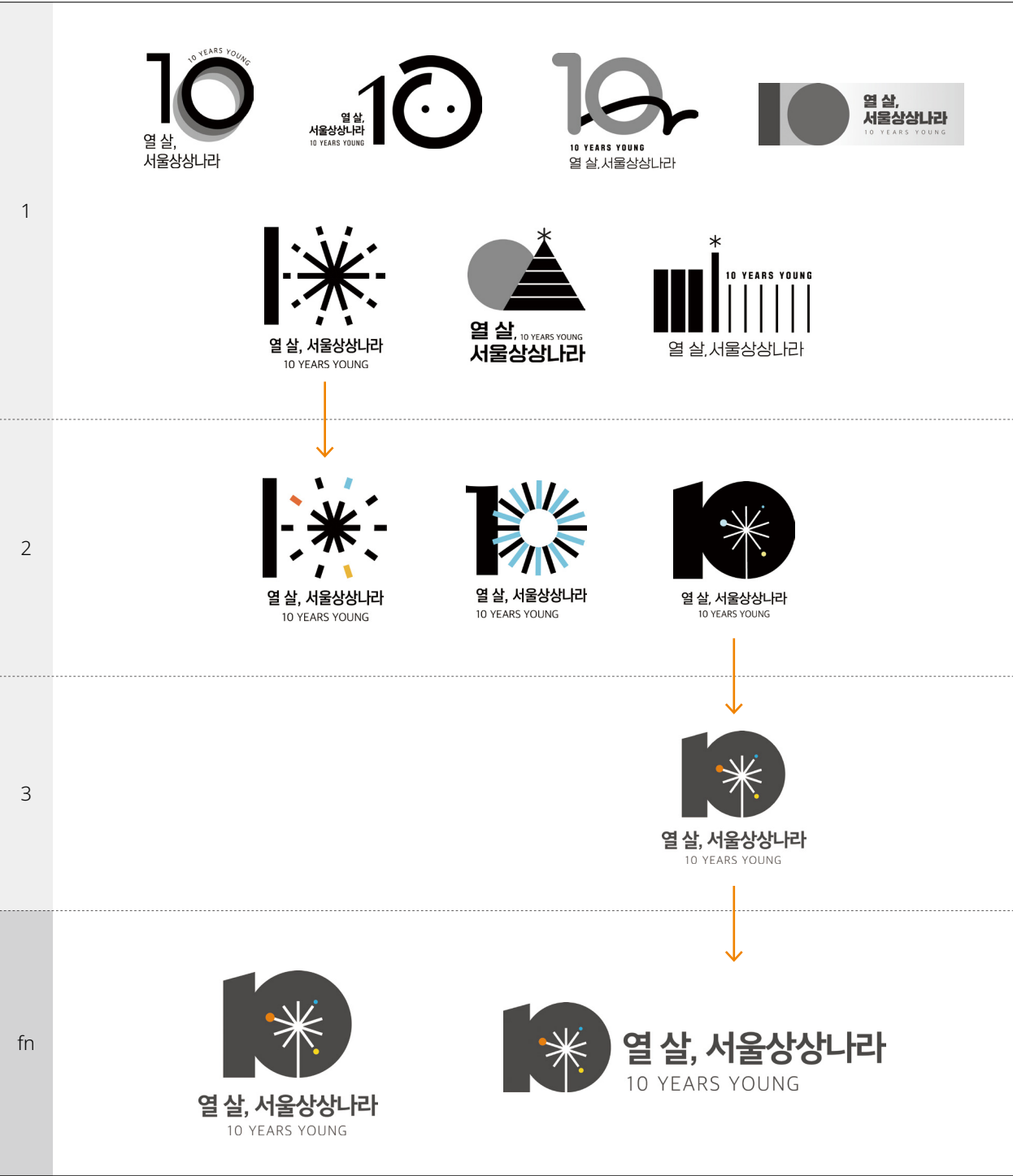
지금

10주년을 의미하는 숫자 ‘10’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과 상승의 이미지로 로고 디자인 초기 시안을 만들어 가면서, 슬로건과 로고사이의 연결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슬로건과 로고는 각각의 위치에서는 뜻을 다 하고 있지만, 서로가 매끄럽게 어울리거나 호응하지 못해 이야기가 없는 단순 조합처럼 보였습니다. 로고와 슬로건에 담아낼 이야기를 찾기 위해 슬로건을 보다 보니 왜 ‘10주년’이 아닌 ‘열 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열 살’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전달되고, 또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키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처럼 서울상상나라 또한 지난 10년 동안 많은 경험과 변화를 겪으며 성장한 여느 열 살 어린이와 다르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열 살 어린이의 생일에 지난 일을 되묻거나 선불리 미래를 전망하지 않듯 열 살이 된 그 자체, ‘지금’을 축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10주년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집중하다보니 가장 중요한 가치인 ‘축하’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로고 시안을 추가하여 총 7개의 초기 시안으로 내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기보다 지금의 10주년 자체를 축하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확장되는 불꽃·폭죽의 이미지를 중점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최종으로 정리된 10주년 기념 로고는 서울상상나라의 ‘생일파티’를 주제로, 파티나 축제에서 사용하는 폭죽이나 불꽃의 확장되는 이미지를 사용해 즐거움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10년을 나타내는 10개의 라인과 그 끝에서 터지는 불꽃에 서울상상나라 MI 색상을 담아 서울상상나라만을 위한 축제를 표현했습니다. 2023년은 10주년을 맞은 바로 지금과 우리 스스로를 축하하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해였습니다.

단계별 로고개발 전과정



축하하기

즐거운 축제와 파티의 불꽃을 담은 10주년 기념 로고는 서울상상나라 건물에 대형현수막 설치를 시작으로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날과 개관 기념일, 새 기획전과 로비 특별 전시 개막이 있었던 5월은 로고와 슬로건의 조합이 바쁘게 사용되며 1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습니다. 어린이날 주간 행사에서는 자홍색과 보라색을 사용하여 기본 타입과는 또 다른 개성과 활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개관 10주년 기념 신규 프로그램과 기획전의 포스터와 현수막에도 기존 서울상상나라 MI와 함께 배치하여 관내·외에서 10주년을 홍보했습니다.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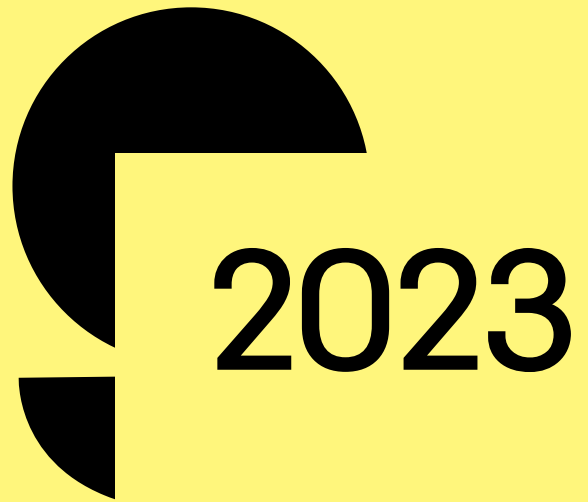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고민하며 시작했던 로고 디자인은 ‘현재’를 담아내며 10주년을 맞은 지금을 더욱 진정성 있게 축하해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이 지나면 기록으로만 남을 로고이지만 순간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터지는 불꽃처럼, 10주년 로고도 서울상상나라를 위해 스스로 올 한 해 즐겁게 축하하고 사라진다고 나름의 이야기를 덧붙여 봅니다. 10주년을 나타냈던 10개의 선은 내년부터 또 하나씩 더해갑니다. 서울상상나라가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게 앞으로도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 기념품에 적용한 화이트 버전 로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활용한 슬로건과 로고



기획전

모두를 응원해

상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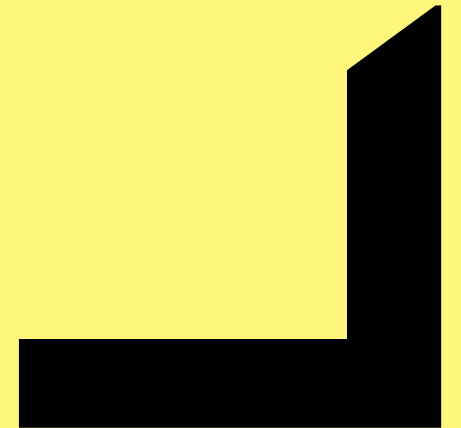
우리, 캠핑 가요!

행복 정원-서울엄마아빠VIP존

특별전

꿈의 상상

행복한 꿈을 모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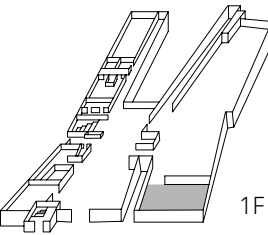
기획전

서울상상나라
개관 10주년 기념
기획전시

주제 어린이의 마음 근력과 행복

기간 2023. 5. 2. ~

장소 1층 기획전시실



모두를 응원해

Go for It!

기획의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실패하지는 않을지 두렵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는 무엇이든 꿈꾸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서울상상나라 개관 10주년 기획전시 <모두를 응원해>는 모든 어린이의 빛나는 도전과 행복한 성장을 응원하는 전시입니다.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으며 마음껏 자신을 펼쳐나가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도전의 즐거움,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해냈을 때의 성취감, 그리고 협동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내면의 힘, 즉 마음 근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온 가족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체험으로 이루어진 전시입니다.

구성

주제 구분		전시물
도전할 준비	자아존중감	난 할 수 있어, 마음 응원단
도전의 즐거움	회복탄력성, 성취감	빛나는 도전, 천천히 해도 괜찮아
따뜻한 응원	심리적 해소, 협력의 가치, 사회적 관계	걱정을 날려요, 마음을 모아요, 우리의 시상식
아웃트로	어린이의 마음 근력	아동 심리 전문가 인터뷰 영상



- 1
- 12
- 3
- 4

- 1 전시 전경
- 2 영상 속 캐릭터와 함께 나를 응원하는 춤을 추며 도전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난 할 수 있어’
- 3 발판을 밟으면 ‘마음 응원단’이 나를 응원하고, 그 응원을 받아 용기를 충전하는 전시물
- 4 랜덤으로 켜지는 불빛을 제한 시간 내에 모두 끄는 전시물로, 친구들과 함께 도전의 즐거움에 빠져볼 수 있는 ‘빛나는 도전’



- 5

6

5 어린이의 도전을 주저하게 하는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 파쇄기에 넣고 날려버리는 ‘걱정을 날려요’
- 6

6 다양한 블록 쌓기에 도전하며 천천히 공들여 해낸 후의 성취감을 느껴보는 ‘천천히 해도 괜찮아’
- 7 각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마음이 더 커진다는 협동의 가치를 알리는 ‘마음을 모아요’
- 7

8

8 서로에게 칭찬 트로피를 건네고 함께 사진을 찍어 간직하는 ‘우리의 시상식’
- 8

디자인 의도

응원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운동회’를 모티브로 하고, 트랙라인이나 응원하는 사람들, 스코어보드 등 운동장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전시 그래픽 전반에 활용하여 응원 컨셉을 강조했습니다. 홍보물에는 주황색과 노란색이 섞인 난색을 사용하여 활기와 함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전시 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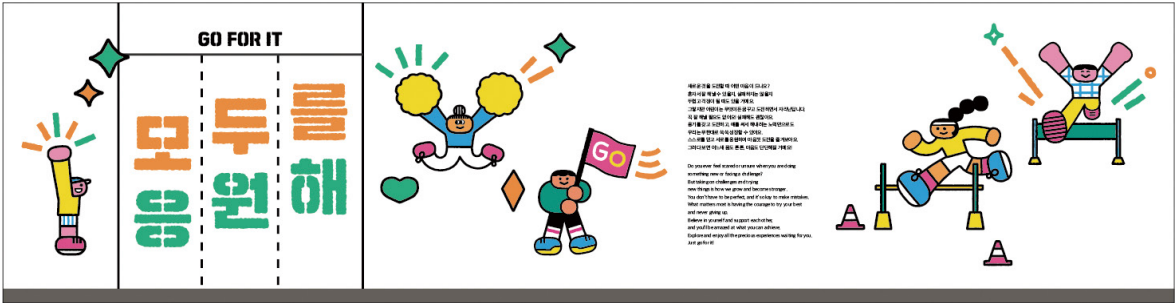
홍보물



외관 현수막

포스터

입구 연출 계획



전시 사인

아이의 행복과 마음근력

아이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해 성취를 이루며 자신의 가치를 찾아갈 때 행복하게 성장합니다. 이러한 자아실현을 이루는 데에 긍정심리학자들은 인지 능력이나 선천적 재능 보다는, 스스로 성장하고자하는 끈기와 열정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회복탄력성과 같은 마음 근력을 단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마음 근력은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키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가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과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해요. 자율성이 지니면 때 아이는 자신이 무엇이트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실패와 도전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게 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도전하며 마음 근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Happiness and Inner Strengths

Raising happy children involves helping them discover their strengths through diverse experiences and lead them to feel achievements based on their strengths. Positive psychology suggests that developing "inner strength" - perseverance, passion, and resilience - is more crucial for self-actualization than cognitive abilities. Parents can foster this inner strength by letting children try diverse meaningful tasks for themselves. Supporting the autonomy empowers children to tackle failures and challenges with self-efficacy. This way, they are able to learn what they are good at, become immersed in their activities, and experience happiness.

빛나는 도전

Sparkling challenge

시작 버튼을 누르면 스위치에 불빛이 켜져요. 제한 시간 안에 불빛을 모두 끄면 조명이 멋지게 빛날 거예요. 모두가 함께 신나게 도전에 빠져보아요.

Press the start button and switch off all the lights, before time runs out. When you succeed, you'll be rewarded with a beautiful display of shining lights. Let's enjoy this challenge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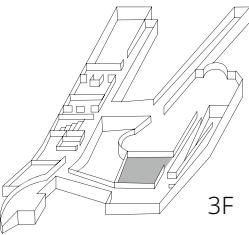
상설전

서울상상나라
개관 10주년 기념
상설전시

주제 의식주와 캠핑

기간 2023. 10. 31. ~

장소 3층 문화놀이



우리, 캠핑 가요!

Let's Go Camping!

기획의도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개편한 문화놀이 영역 전시 <우리, 캠핑 가요!>는 인류 문화에 보편적인 의식주 생활과 이를 스스로 해결해보는 캠핑*을 주제로 한 체험전시로, 어린이와 가족이 집이라는 주거 공간을 벗어나 야외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꼬마 캠퍼가 되어 스스로 캠핑을 계획하고 직접 실행해보는 체험을 통해, 어린이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가족과 주변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캠핑을 떠나기 전 연습을 위한 안전한 준비 체험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나아가 공동체와 자연을 배려하는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캠핑-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먹고 자는 생활

구성

주제 구분		전시물
인트로		캠핑이란
준비해요	(캠핑) 계획하기	두근두근 캠핑, 나의 캠핑가방, 상상 캠핑마트
이동해요	(캠핑) 실행하기	상상 캠핑카
캠핑을 즐겨요		우리들의 베이스캠프, 요리조리 캠핑, 도란도란 캠핑, 반짝반짝 캠핑, 자연 속으로
아웃트로		캠핑 에티켓



- 1

1

2

3

3

4
- 1 전시 전경

2 캠핑에 대해 알아보고 캠핑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도입전시 ‘캠핑이란’

3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할지 나만의 캠핑 계획을 세워보는 ‘두근두근 캠핑’

4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나의 캠핑가방’ 꾸리기



5	6
7	7
8	9
10	
11	12

- 5 캠핑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를 준비하는 ‘상상 캠핑마트’
- 6 ‘상상 캠핑카’를 타고 바깥 풍경을 감상해보는 전시
- 7 대형 텐트 안에 들어가 보고, 직접 텐트를 쳐보는 ‘우리들의 베이스캠프’
- 8 나도 캠핑 요리사! ‘요리조리 캠핑’
- 9 모닥불을 지펴보고, 꼬치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누는 ‘도란도란 캠핑’
- 10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감상해보는 ‘반짝반짝 캠핑’
- 11 캠핑장 주변의 자연을 느껴보는 포토존 ‘자연 속으로’
- 12 자연에 머문 흔적을 남기지 않는 ‘캠핑 에티켓’ 영상

디자인 의도

캠핑의 계획과 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어린 탐험가’라는 가상인물의 방에서부터 캠핑장까지의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낮선 곳이나 야영장의 느낌을 위해 짙은 청색 등의 어두운 색감과 밤 분위기를 보여주는 일러스트를 활용하였습니다.

홍보물



외관 현수막

로비 현수막

포스터

전시 로고



전시 사인



입구연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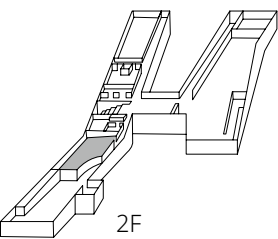
상설전

서울엄마아빠
VIP존

주제 엄마, 아빠의 행복한 삶

기간 2023. 11. 30. ~

장소 2층 서울엄마아빠 VIP존



행복 정원

Happy Lou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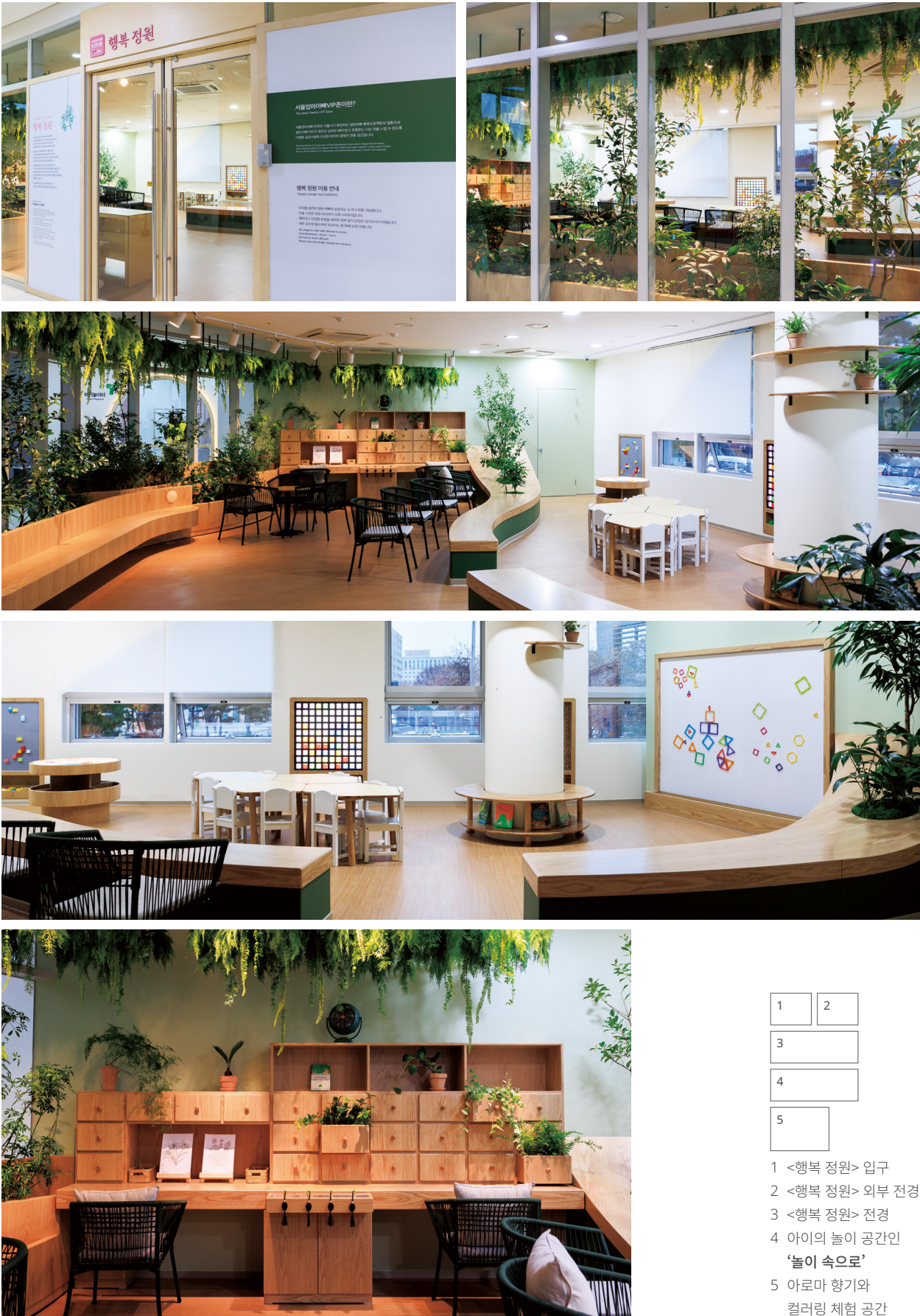
기획의도

‘서울엄마아빠VIP존-<행복 정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양육자와 아이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공간입니다. 관람객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모와 아이 공간으로 구분하여, 함께 있지만 서로 독립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엄마·아빠를 위한 공간인 ‘정원 속으로’는 자연 콘셉트로 구성하여 식물, 음악, 향기를 통해 오감으로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며, 도서와 컬러링 등의 활동으로 행복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아이 공간 ‘놀이 속으로’는 엄마·아빠가 쉬는 동안 아이 스스로 블록, 자석 교구 등 자유 구성놀이를 경험하며 정서적 안정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성

주제 구분		체험 활동
정원 속으로	엄마·아빠를 위한 몸과 마음의 휴식	향기 맡기, 음악 듣기, 식물 감상하기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놀이 속으로	어린이를 위한 몰입형 놀이 정서적 휴식	자유 구성 놀이(5종) (점선면 그림, 색 블록, 레고, 자석 칠판, 라이팅 테이블과 자석) 책 읽기



- 12
- 3
- 4
- 5

1 <행복 정원> 입구

2 <행복 정원> 외부 전경

3 <행복 정원> 전경

4 아이의 놀이 공간인
‘놀이 속으로’

5 아로마 향기와
컬러링 체험 공간



- 6

7

8
- 9
- 10

- 6 빛을 활용한 테이블과 벽면의 자유 구성놀이
- 7 아이와 구성놀이를 즐기는 모습
- 8 잠깐의 휴식 시간을 즐기는 가족
- 9 엄마는 휴식을 취하고 아빠는 아이와 놀이하는 모습
- 10 식물로 정서적인 휴식을 취하는 엄마와 아이

디자인 의도

심과 안정감을 연출하고자 차분하고 아늑한 느낌의 상아색과 녹색을 주로 사용하였고, 많은 여백공간 위 식물 핸드드로잉만 배치하여 공간의 성격과 분위기를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대표 글꼴로 명조체를 사용하여 감성적이고 차분한 이미지를 연출하였습니다.

홍보물



입구 연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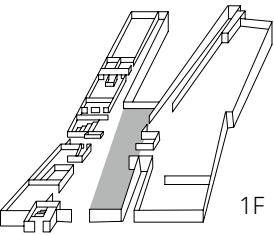
특별전

서울상상나라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시

주제 어린이의 무한한 상상

기간 2023. 5. 2. ~

장소 1층 로비



꿈의 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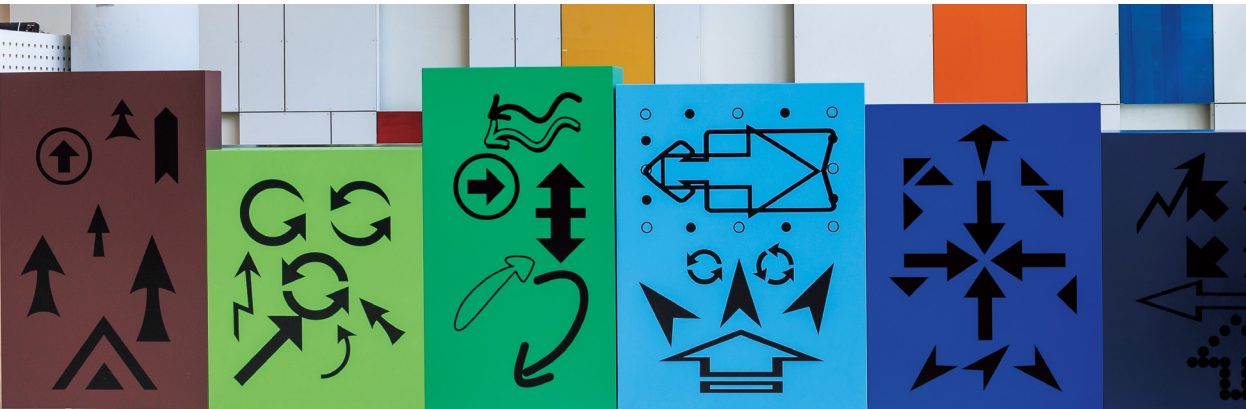
Dreams Imagination

기획의도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열 살, 서울상상나라’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기답게 꿈을 펼치며 서로 조화롭게 성장해나가길 바라는 박미나 작가의 마음이 담긴 설치미술 작품 전시입니다. <꿈의 상상>은 열여섯 개의 ‘꿈의 상자’와 포토존 ‘세모네모 집’, 회화 ‘꽃 스크림’, 총 3가지 작품으로 구성되며, 집과 꽃밭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다양한 색과 기호로 표현했습니다. 크레파스 16색으로 칠해진 '꿈의 상자'에 방향 기호를 이용한 얼굴 표정 그림으로 어린이들 내면의 잠재력을 형상화하여, 각각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성

전시물	세부내용
꿈의 상자	설치미술 (나무 위에 도색, 실크스크린, 가변 크기.)
	박미나 작가는 이렇게 상상해요! 마음이 따뜻한 제빵사 노랑 하나, 50x121cm. 믿음직한 경찰관 연주향 둘, 130x93cm. 엉뚱한 크리에이터 주황 셋, 160x107cm. 합리적인 변호사 다홍 넷, 160x90cm. 다정한 선생님 분홍 다섯, 120x99cm. 용감한 만화가 빨강 여섯, 150x110cm. 재치 있는 작가 보라 일곱, 130x90cm. 온화한 CEO 황토색 여덟, 165x76cm. 사교적인 배우 갈색 아홉, 100x100cm. 민첩한 운동선수 고동색 열, 170x107cm. 감성 있는 가수 연두 열하나, 130x110cm. 용기 있는 수의사 초록 열둘, 170x95.5cm. 치밀한 의사 하늘색 열셋, 160x122cm. 현명한 과학자 파랑 열넷, 150x113cm. 지혜로운 게이머 남색 열다섯, 135x125cm. 활기찬 회사원 회색 열여섯, 160x145cm.
세모네모 집	포토존 (나무 위에 도색, 300x360cm.)
꽃 스크림	회화 (캔버스에 잉크젯 프린트, 140x140cm.)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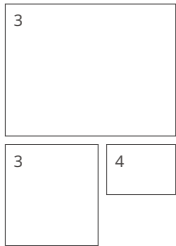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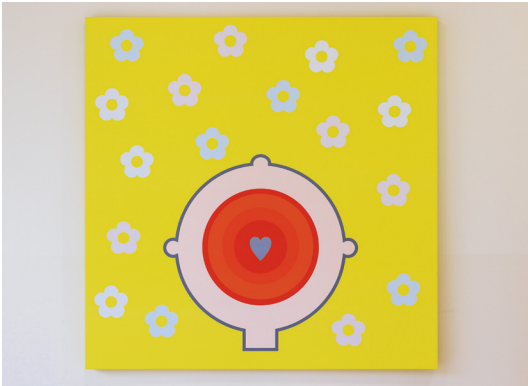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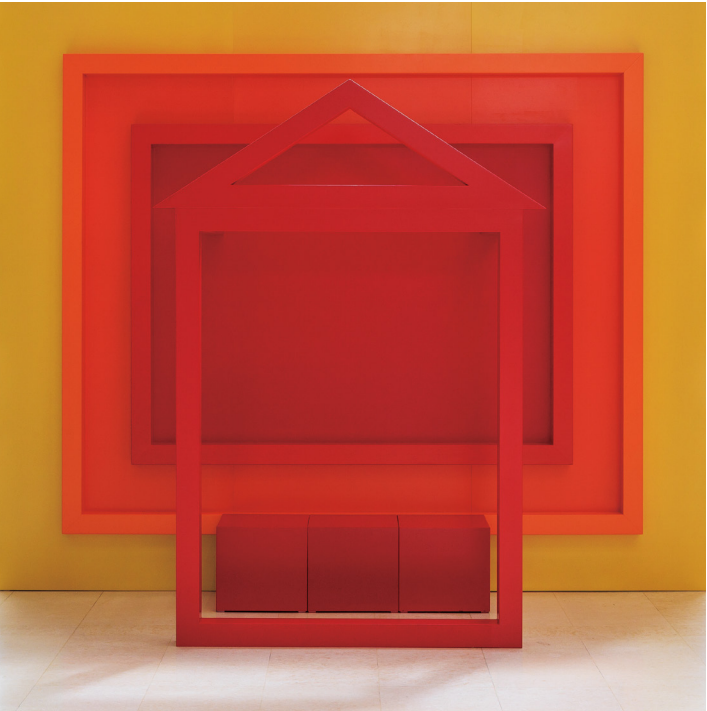
2

2

2

1 전시 전경

2 크기도 색도 다른 열여섯 개의 '꿈의 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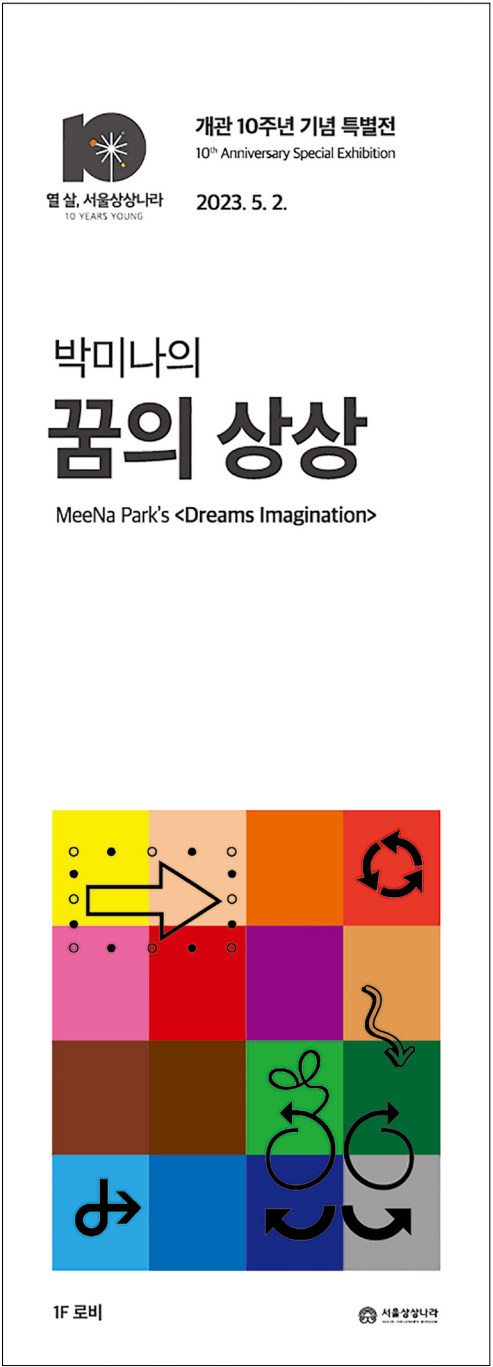


3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포토존 ‘세모네모 집’
4 박미나 작가의 회화 작품 ‘꽃 스크림’

디자인 의도

전시 홍보물 디자인은 박미나 작가 작품의 특징인 ‘16가지 색상’을 타일 형식으로 정돈하고 조합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위에 ‘딩벳’, ‘방향 기호’들을 자유롭게 배치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어린이들의 잠재력과 상상을 나타내었습니다.

홍보물



로비 현수막



박미나 Park, Mee-Na
꿈의 상상
Dreams Imagination

2023
박미나의 <꿈의 상상>은 열여섯 개의 <꿈의 상자>와 포토존 <세모네모 집>, 회화 <꽃 스크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꿈의 상자> 2023. 나무 위에 도색, 실크스크린 기법 크기 300x360cm.
<세모네모 집> 2023. 나무 위에 도색, 300x360cm.
<꽃 스크림> 2023. 캔버스에 잉크젯 프린트, 140x140cm.

서울상상나라의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어린이들이 자기답게 꿈을 펼치며 자라는 모습을 색과 기호로 표현한 박미나 작가의 작품입니다.
크레파스의 색을 이용한 열여섯 개의 <꿈의 상자> 위에 화살표와 같은 방향 기호로 구성된 얼굴 표정 그림으로 어린이들 내면의 잠재력을 형상화했습니다.

작품 설명 패널



리플렛(앞-뒤)

특별전

서울상상나라
개관 10주년 기념
관람객 참여형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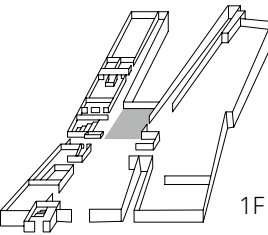
행복한 꿈을 모아요

Happy Dreams

주제 어린이의 성장과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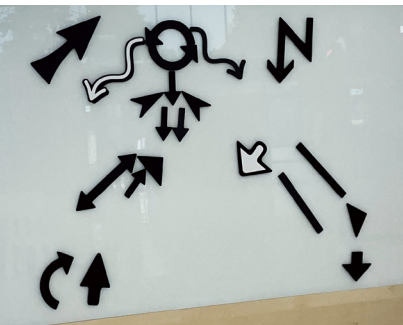
기간 2023. 5. 2. ~ 7. 16.

장소 1층 로비



기획의도

<행복한 꿈을 모아요>는 서울상상나라 개관 10주년 기념 작업 박미나의 <꿈의 상상>과 연계한 관람객 참여형 전시입니다. 다양한 크기와 색깔을 지닌 16개 ‘꿈의 상자’ 작품을 감상한 후, 어린이들이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떠올려보고, 작가처럼 화살표를 이용해 나만의 행복한 얼굴 표정 그림을 완성합니다. 스티커와 자석을 이용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전시 해보는 방식으로, 약 2달 간 어린이와 가족 1만 4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	2
1	
2	3

- 1 전시 전경
- 2 스티커를 붙여 나만의 행복한 얼굴 표정 그림을 만들어보는 참여형 전시
- 3 화살표 모양 자석 블록으로 얼굴 표정 그림을 만들어보는 참여형 전시

디자인 의도

떨어져 있는 글자들이 방향 기호에 따라 모여 전시 제목이 되는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각각 분리되어 있는 글자들의 가시성을 위해 무게감이 있는 고딕체를 사용했고, 방향 기호들은 명도를 높여 제목과의 명확한 구분을 주었습니다.

전시 활동지

서울상상나라
개관 10주년 기념
관객 참여형 전시

행복한
꿈을
모아요

서울상상나라 개관 10주년 기념 관객 참여형 전시 - 행복한 꿈을 모아요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요?
자신을 이용하여 나만의 행복한 얼굴 표정 그림을 완성해보세요. 화살표 모양 자석 블록을 붙여 완성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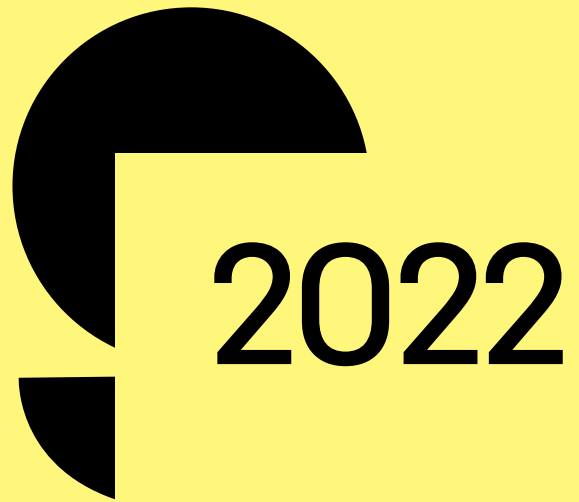
행복한 꿈을 모아요

스�티커

활동지 앞·뒷면

구성

주제 구분	전시물
전시 개요	그래픽 연출물
참여형 전시	화살표 모양 전시대, 테이블, 스톨, 전시대, 자석 블록



상설전

아기놀이터

특별전

제인 구달과 함께 하는 VR 야생 탐험

열두 달의 어린이날

특별교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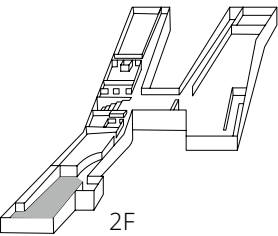
발견가방 - 장욱진의 그림상자

상설전

주제 영아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기간 2022. 9. 13. ~

장소 2층 아기놀이터



아기놀이터

Toddler Playground

기획의도

아기놀이터는 36개월 미만의 아기와 보호자가 ‘함께’, ‘행복하게’ 성장하는 공간으로, 아기가 보호자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날갯짓을 준비하는 동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영아기는 태어나서 가장 큰 신체발달을 경험하는 단계이기에 신체활동 공간을 확장시켜 마음껏 걷고 뛰고,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신체활동과 구분하여 인지, 사회·정서, 언어 발달을 자극하는 조용한 몰입 공간을 구성하여 한층 더 깊이 있게 놀이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휴게 공간의 동선 개선 및 서울시가 제작 배포한 육아공간 개선 안내서를 기준으로 수유·이유·배변 공간으로 분리하고 공간을 확대하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성

주제 구분	전시물
세상이 궁금해	포근한 동지
처음 만나요	누구일까요? 아장아장 걸음마
쑥쑥 자라요	꿈지락 방 커다란 동지(미끄럼틀, 계단)
호기심이 가득해	커다란 동지(까꿍놀이, 두근두근 다리, 빛과 색)
따로 또 같이	놀이가 쑥쑥(퍼즐, 블록, 소꿉 등)
휴게 시설	아기 쉼터



- 1

2

3

4

5
- 1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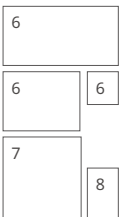
2 아기 새가 되어 동지에 기대어
엄마와 함께 책을 읽어보는 ‘포근한 동지’

3 걷기 시작하는 아기를 위한 활동으로
안전바를 잡고 한 걸음 두 걸음 걷고,
내 모습을 거울로 볼 수 있는 ‘아장 아장 걸음마’

4 울록 볼록 모양도 크기도 다른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고 표정을 바꾸며 놀이할 수 있는 ‘누구일까요?’

5 눈과 귀, 손으로 만지고 느끼며 감각을 발달시키고,
촉감을 비교해 보고, 색깔과 모양을 탐색하는
‘꿈지락 방’





- 6 미끄럼틀을 타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대근육을 키울 수 있고, 색색의 아크릴 모빌로 감성을 키워보는 ‘커다란 등지’
- 7 소근육과 인지발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나무 교구와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소꿉놀이 교구’
- 8 서울시 가이드에 따라 수유·이유·배변공간으로 구분하고, 동선을 개선한 ‘아기 쉼터’



디자인 의도

영아를 위한 공간으로서 따스함과 편안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작나무를 선택하였고, 입구 연출 및 사인에도 함께 적용하여 연계성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역동적인 영아들의 놀이 활동을 강조하고자 공간 한편의 내부 색상을 그린톤으로 표현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홍보물



외관 현수막

전시 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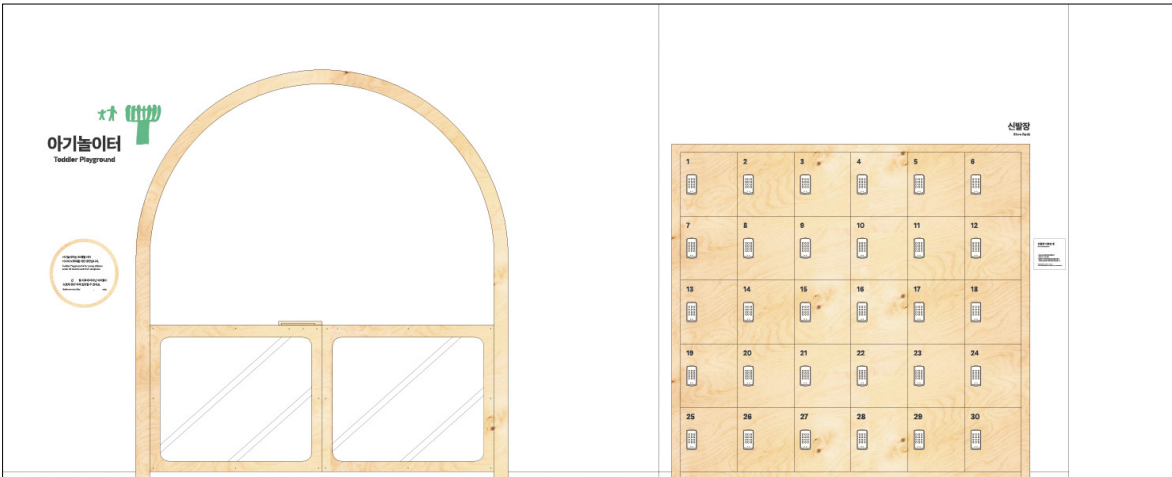


포스터 2종

전시 사인



입구 연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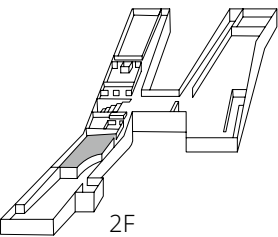




주제 생명의 공존

기간 2022. 9. 21. ~ 2023. 9. 17.

장소 2층 생각놀이터



* 이 전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가상(VR) 몰입 경험을 만드는 프랑스의 와일드이머전 (WILD IMMERSION SAS)과 전시협약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제인 구달과 함께하는 VR 야생 탐험

Wild Immersion Endorsed by Jane Goodall

기획의도

생각놀이터 특별전시 <제인 구달과 함께하는 VR 야생 탐험>은 세계 곳곳의 야생동물 보호구역 속으로 들어가는 몰입형 360도 VR 체험을 통해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보는 전시입니다.

침팬지 연구를 위해 아프리카 야생 보호구역에 들어간 제인 구달처럼, 전 세계 다양한 자연 환경과 그 속에 사는 야생동물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서, 지구상 다양한 생명체의 공존을 느낄 수 있습니다. VR 체험 프로그램은 야생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1년 간 어린이와 보호자 4,951명(836회 운영/일 2~4회)이 참여했습니다.

구성

주제 구분	전시물
VR 체험실	VR 헤드셋, 헤드폰, 회전의자, 스톨
대기 및 심화 학습 공간	인포그래픽(경이로운 지구-세계의 야생 동물들, 바다에 사는 동물들), 관련 도서, 테이블, 스톨
야생 보호구역	유인원(침팬지, 산악고릴라, 오랑우탄) 인형, 인조 식물 연출, 디지털 액자

VR 체험 프로그램*

구분	내용
도입	5분 '아름다운 별, 지구' 영상 상영
VR 체험	15분 VR 콘텐츠 28편 중 1편 상영 내러티브형 6편 (아프리카, 아마존, 아시아-오세아니아) 감상형 22편 (유인원, 땅, 바다, 세계 여행, 중앙아메리카의 보물, 북극, 계절, 파충류,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영화)
마무리	5분 생명의 공존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총 25분 내외	



- 1 전시공간 전경 (입구, 전경)
- 2 기기를 쓰고 야생으로 순간 이동하는 몰입 체험 공간 'VR 체험실'



3		
3		3
4	4	4

- 3 멸종위기 야생 동물들에 대해 더 알아보는 ‘대기 및 심화 학습 공간’
- 4 멸종위기 동물들의 서식지 환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야생 보호구역’ 연출
침팬지·산악고릴라(아프리카), 오랑우탄(아시아)



디자인 의도

몰입형 360도 VR체험을 통해 자연과 야생동물을 느껴보는 전시주제와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특징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맑은 하늘, 지구, 야생동물 등의 사진과 함께 VR기기를 착용한 체험사진으로 홍보물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시장 내부는 종이로 만든 지관, 목재, 허니콤보드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주제와 어울리는 공간의 연출을 조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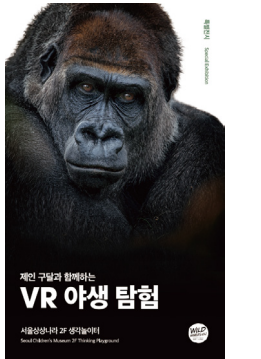
홍보물



대공원 현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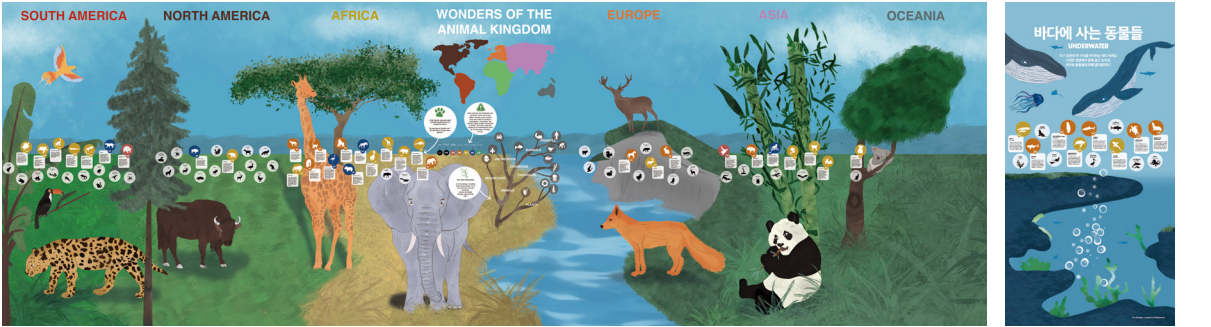


포스터(Designed by Wild Immersion)



전시 리플렛

전시 벽면 그래픽 연출



인포그래픽(Designed by Wild Immer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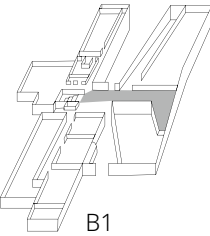
전시 벽면 그래픽 연출



특별전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아동 권리 특별전

주제	아동 권리
참여 작가	시물라쇼, 이수현, 최윤희
기간	2022. 5. 3. ~ 2022. 11. 27.
장소	지하 1층 특별전시실



열두 달의 어린이날

Every Day Is Children's Day

기획의도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처음 선포했을 때와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오늘날 어린이의 권리가 신장되었으나,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아동 노동이나 폭력 등이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 일상 속에서도 아동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 년 열두 달 내내 어린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함을 전달하고자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일상 속 아동 권리 이슈를 담고 있는 위트 있는 일러스트 작품과 유엔아동 권리협약의 내용을 연결하여 가족 관람객이 아동 권리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 권리에 대한 이야깃거리가 담긴 그림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여 체험에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구성

주제 구분	전시물
어린이는 누구일까요?	거울 연출 포토존
열두 달의 어린이날	일상 속 아동권리 일러스트 작품 12점
그림책 속 아동 권리	아동 권리 관련 그림책
아동 권리 관련 정보	시대별 아동 권리 관련 글귀



- 1

2

3

4
- 1 전시 전경

2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의 도형처럼 어린이는 각자 다른 모습 그대로 존중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어린이는 누구일까요?’

3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임을 느껴보는 포토존

4 달력 형태의 일러스트 작품을 감상하며 일상 속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열두 달의 어린이날’



5	
6	7
7	

- 5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하여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벽면 구성
- 6 그림책을 읽으며 어린이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림책 속 아동 권리’
- 7 전시와 연계하여 가족 관람객과 어린이 권리에 대해 소통하는 ‘큐레이터와의 대화’ 프로그램



디자인 의도

자신만의 색깔과 모습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전시 주제를 담아 여러 색의 도형들을 그래픽으로 풀어내어 전시 연출과 홍보물 구성에 활용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도 존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 포토존을 연출했습니다. 매일이 어린이날처럼 아동 권리가 지켜질 수 있길 바라는 기획 의도를 담아 일러스트 작품을 달력 형태로 구성하고 전시장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철제 기둥을 활용하여 배치했습니다.

홍보물



정문 유리창 출력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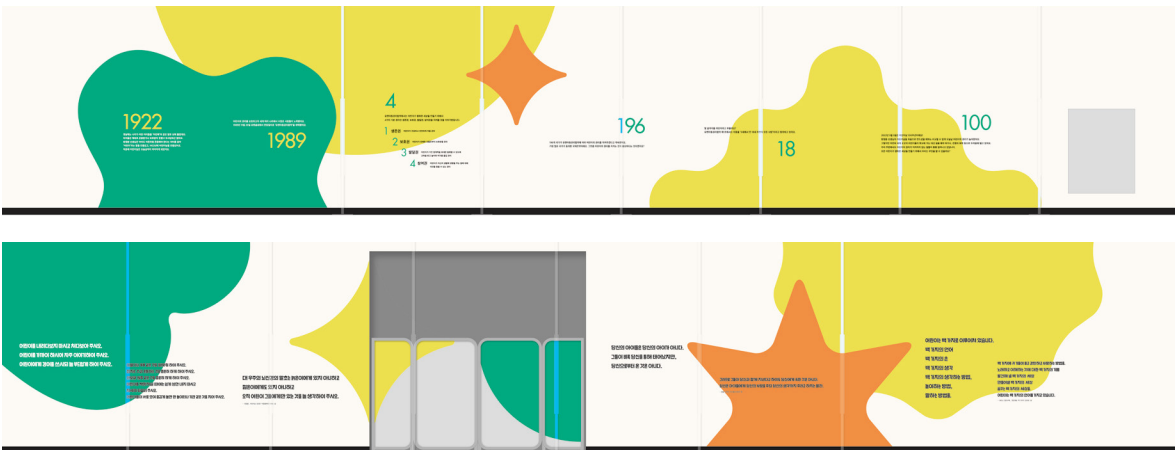
관내 현수막

포스터

입구 및 포토존 연출계획



전시 벽면 그래픽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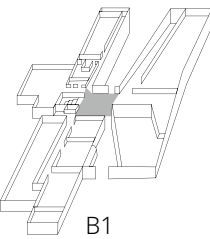


특별
교류전

주제 현대미술 작품의 재구성

기간 2022. 12. 23. ~

장소 지하1층 로비



발견가방 -
장욱진의 그림상자

The Discovery Box with Chang Ucchin's Artwork

기획의도

서울상상나라는 2013년 개관 이래 매년 2회 이상의 순회전 개최, 이동형 체험전시 키트인 발견 가방을 개발하고 대여하는 등 어린이 체험전시 문화 확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발견가방 - 장욱진의 그림 상자>는 그 일환으로 서울상상나라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이 공동 개발한 이동형 예술놀이 체험전시입니다. 서울상상나라의 놀이 체험형 콘텐츠 개발의 노하우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의 장욱진 작가 작품을 결합하여 체험 전시물로 제작된 그림 상자는 어린이들이 현대미술작품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장욱진 작가의 ‘가족’과 ‘가로수’ 두 작품으로 구성된 체험전시에서 어린이들은 꼬마 작가가 되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요소를 자유롭게 재구성하면서, 표현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시는 서울상상나라와 양주시립미술관에서 각 1점씩 전시 후 상호 교환하여 2차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순회 전시될 예정입니다.

구성

주제 구분	작품	전시물
예술 작품 재구성하기	‘가로수’	조립형 그림판과 자석 소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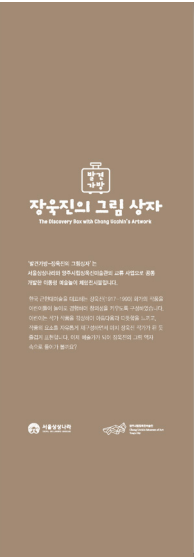
- 1
- 2
- 3

- 1 서울상상나라 설치 전경, 작품 ‘가족’
2 서울상상나라 설치 전경, 작품 ‘가로수’
3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설치 전경

디자인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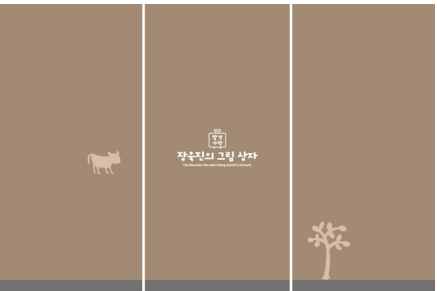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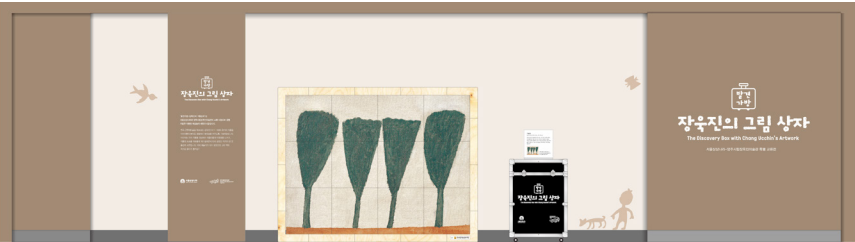
작가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밝고 따뜻함을 연출하고자 자연의 색상과 목재를 사용하여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작품 속 아이같은 천진함을 표현하기 위해 동물을 활용하여 벽면 입체 연출로 강조했습니다.

홍보물



전시배너

전시 사인 연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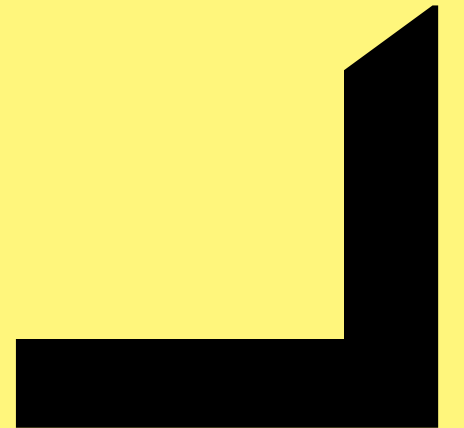
2022-2023

순회전

5개의 집과 30개의 문 - 상상하는 작가 안규철

띠리띠리 컴퓨터 세상

발견가방 - 예술놀이



순회전

주제'문'을 통해 경험하는 새로운 세상

기간2023. 4. 28 ~ 8. 31.

장소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 어린이문화원

5개의 집과 30개의 문
상상하는 작가 안규철

5 Houses and 30 Doors Imaginative Artist Ahn, Kyuchul

기획의도

<5개의 집과 30개의 문 - 상상하는 작가 안규철> 순회전시는 놀이와 체험 중심의 서울상상나라 전시에 안규철 작가의 현대 미술 작품을 결합하여 주제 분야를 넓히고 깊이를 더한 전시입니다.

전시 작품은 전시문화 확산과 전시자원의 순환을 염두에 두고 기획 및 작품 구상단계부터 모듈형의 구조체로 설계하여 전시종료 후 순회 전시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023년 서울상상나라에서 전시를 마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어린이문화원에서 전시하였으며,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26,052명의 관람객이 관람했습니다.

구성

주제 구분	주제 구분	전시물
작품	'문'을 통해 만나는 색다른 공간	시간의 문
		일그러진 집
		하늘의 집
		식물의 집
		거울의 집
아카이브	문을 열고 세상을 만나다, 문을 통해 세상을 읽다	드로잉 11점, 모형 4점
워크숍		벽부형 칠판, 워크숍 테이블

5개의 집과 30개의 문
상상하는 작가 안규철

5 Houses and 30 Doors Imaginative Artist Ahn, Kyuchul

1 전시장 입구

2 새롭게 설치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안규철 작가

3 전시물과 워크숍 공간

4 아카이빙 공간

5 드로잉 체험공간과 활동하는 관람객

작가의 문, 나의 문 드로잉
Drawing : Artist's Door, My Door

안규철 작가의 문에 대한 드로잉이에요.
없었던 문을 만들기도 하고, 벽의 자취를 볼 수도 있어요.
안규철 작가처럼 문과 문 뒤에 감춰진 공간을 상상해서 그려보세요.
This activity is inspired by Ahn Kyuchul's sketches of doors.
You can create a door from nothing and then, if you want, erase.
Use your imagination to draw a door and the space behind it.
Just like the artist!

1 전시장 입구

2 새롭게 설치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안규철 작가

3 전시물과 워크숍 공간

4 아카이빙 공간

5 드로잉 체험공간과 활동하는 관람객

66

67

순회전	
주제	컴퓨터와 코딩 원리 탐색 및 발견
기간	2022. 4. 5.~
장소	국립광주과학관 어린이과학관 노원수학문화관

띠리띠리 컴퓨터 세상

Ti ri, Ti ri Computer World

기획의도

<띠리띠리 컴퓨터 세상>은 컴퓨터의 작동 원리와 코딩의 기본 개념을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전시입니다. 컴퓨터 세상 속으로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품의 역할, 컴퓨터의 언어 이진수, 코딩의 기본 개념인 명령·순차·조건·순서도 등을 체험하는 총 9점의 전시물로 구성됩니다.

서울상상나라에서 2019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5일까지 전시된 이후 더욱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국립광주과학관 어린이 과학관, 노원수학문화관에서 순회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국립부산과학관으로 이동하여 전시될 예정입니다.

기간	장소
2022. 4. 5.~2023. 2. 19	국립광주과학관 어린이과학관
2023. 3. 12. ~	노원수학문화관

구성

주제 구분	전시물
인트로	떠나요! 컴퓨터 속으로!
컴퓨터	서로서로 연결해요. 0과 1로 만드는 내 나이 패킷 퍼즐을 맞춰요
코딩	명령대로 움직여요. 순차대로 움직여요. 조건대로 색칠해요. 순서대로 완성해요.
아웃트로	생활 속 컴퓨터



1	1
2	
3	

- 1 국립광주과학관 어린이과학관 순회전시
- 2 노원수학문화관 순회전시 개막식
- 3 노원수학문화관 순회전시

순회전	
주제	다양한 장르의 예술
기간	2022. 4. 6. ~ 2023. 8. 30.
장소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 및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발견가방 -
예술놀이

The Discovery Box Art Play

기획의도

서울상상나라 <발견가방-예술놀이>는 2019년 제작된 이래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구립도서관 등 어린이 관련 기관을 순회하며 서울시 보육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순수미술, 디자인, 음악, 영상 등 여러 예술 장르의 기초 개념을 놀이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총 4점의 가방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상과 표현 활동의 균형 있는 체험을 통해 유아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접하고 심미적 감수성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	장소
2022. 4. 6. ~ 6. 30.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육아방 아이랑 보라매점
2022. 7. 20. ~ 9. 30.	판교환경생태학습원
2023. 3. 16. ~ 6. 1.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2호점 중랑실내놀이터
2023. 6. 7. ~ 7. 22.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세상놀이터 시흥점
2023. 7. 28. ~ 8. 30.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새길과학놀이터

구성

주제 구분	전시물
순수예술	예술가처럼
디자인	모여라! 점, 선, 면
음악	음악을 즐겨요
영상	꿈지락 생생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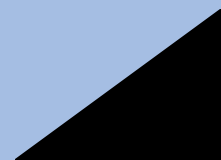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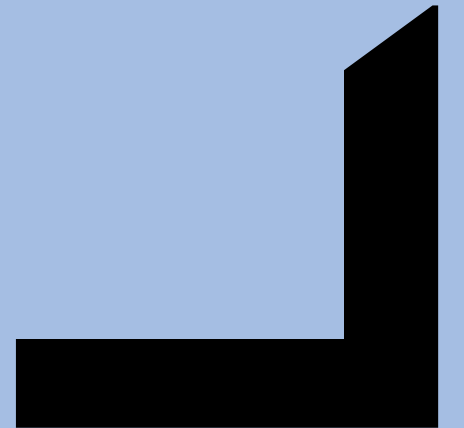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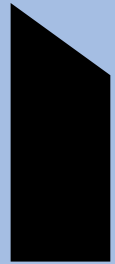
1	2
1	
3	
4	

- 1 ‘판교환경생태학습원’ 기획전시실
- 2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2호점 ‘중랑실내놀이터’
- 3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세상놀이터 시흥점’
- 4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새길과학놀이터’



서울상상나라 10년의 전시와 어린이

서울상상나라 2013-2023



기획전

1. 대형블럭놀이
2. 까르르 행복놀이터
3. 뱅글뱅글 동그라미

상설전

4. 자연놀이_친근한 자연 환경
5. 예술놀이_다양한 장르의 예술
6. 공간놀이_창의적인 공간 구성
7. 이야기놀이_언어와 신체
8. 상상놀이_소통과 우주

특별전

9. 아기놀이터_영유아 놀이
10. 문화놀이_다문화와 직업
11. 과학놀이_물과 바람의 과학
12. 감성놀이_감각과 장애 이해
13. 공간놀이_빛과 그림자의 공간여행
14. 문화놀이_우리동네 집짓기

특별전

15. 감성사진전 행복을 보다

환경연출

16. 고래의 꿈



기획전

1. 생각 변신 놀이

상설전

2. 자연놀이_자연의 사계절 이야기
3. 감성놀이_보일락 말락
4. 신체상상놀이_우주 탐험 올림픽

특별전

5. 상상 모아모아 어린이 숨씨전



기획전

1. 통통 놀이 공장
2. 마음아, 안녕!

상설전

3. 과학놀이_물과 바람의 흐름
4. 예술공간놀이_이상의 예술골목

특별전

5. Hello 마음도시
6. 풍경 조각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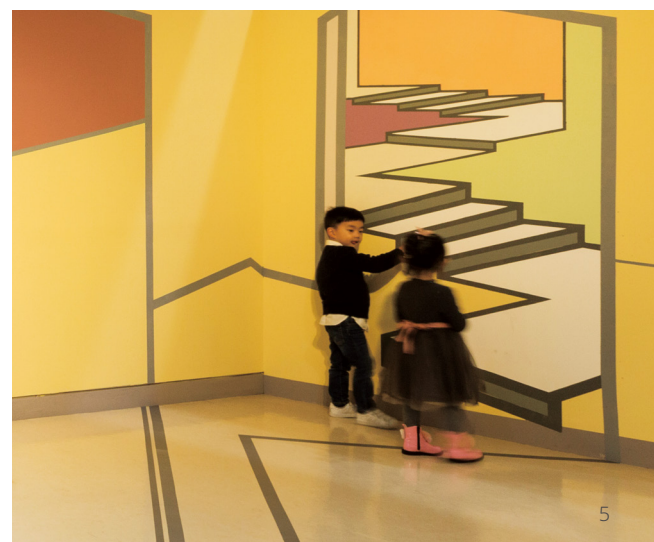
2



6



3



5



2



4

기획전

1. 띠리띠리 컴퓨터 세상

상설전

2. 자연놀이_별별 동물 퍼즐
3. 과학놀이_흐름을 즐기다
4. 감성놀이_나의 소리 세상

특별전

5. 그림책으로 만나는 동물
6. 상상나라 발견가방-예술놀이
7. 상상 비밀노트-서울상상나라 전사·교육 개발의 숨은 이야기



기획전

1. 5개의 집과 30개의 문
상상하는 작가 안규철

상설전

2. 신체상상놀이_뽀뽀! 편 에너지
3. 아기놀이터

특별전

4. 열두 달의 어린이날
5. 제인 구달과 함께하는 VR 야생 탐험



기획전

1. 모두를 응원해

상설전

2. 문화놀이_우리, 캠핑가요!
3. 서울엄마아빠VIP존_행복 정원

특별전

4. 꿈의 상상
5. 행복한 꿈을 모아요



관람·이용 안내

관람시간	10:00 ~ 18: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입장료	구분	비용
	개인(36개월 이상)	4,000원
	단체(20명 이상)	3,000원
	연간회원·기타*	무료
	* 36개월 미만, 한부모 가족,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국민기초수급생활자 및 자녀, 장애인, 장애인의 동반 성인 1인,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국가보훈처 및 기타법령의 감면 대상자	

주소	0499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상상나라
문의	02-6450-9500
누리집	www.seoulchildrensmuseum.org
인스타그램	@seoulchildrensmuseum
유튜브채널	서울상상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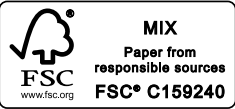
2022-2023

서울상상나라 **SEOUL CHILDREN'S MUSEUM EXHIBITION**
전시

연구기획총괄	장화정
전시개발·원고	장화정, 박선영, 유능화, 기남희, 윤서희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김병태
발행처	서울상상나라
디자인·인쇄·제작	인투그래픽

Copyright 2023. Seoul Children's Museum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상상나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록된 내용 및 자료는 서울상상나라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사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진과 글의 무단 게재를 금합니다.
서울상상나라는 뮤지엄경영연구소(주)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이 보고서는 FSC® 인증을 받은 용지에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되었습니다.



서울상상나라
SEOUL CHILDREN'S MUSEUM

(우) 0499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능동 18번지)

02) 6450-9500 www.seoulchildrensmuseum.org